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동북아 역사갈등

황선익 _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목 차

- I.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몰고 온 2015년의 파장
- II. 근현대 세계유산 등재 추이와 현황
- III. ‘메이지산업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강제동원 문제의 부상
- IV. 근현대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와 또 다른 갈등의 잠복
- V. 세계유산으로 충돌하는 동북아, 전망과 과제

국문초록

2015년 일본의 ‘근대산업시설’(‘메이지산업혁명: 철강·조선·석탄 산업’)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일본 간 역사갈등은 심화되었다. 경제대국 일본의 주요 근대산업시설 중 대부분이 제국주의시기 강제동원의 현장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군함도’가 상징적인 장소로 떠오르면서, 세계유산을 둘러싼 역사 갈등의 파고는 대중적으로 고조되었다.

1990년대 들어 문화청에 의해 근대유산의 발굴과 활용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 경제산업성이 이를 ‘산업유산과 연계하여 ‘근대화산업유산’을 고안하였다. 결국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 각지의 유구들이 역사문화유산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이는 ‘메이지산업혁명: 철강·조선·석탄 산업’(2015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이어졌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는 정부가 주도한 세계문화유산과 다른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2011년 후쿠오카현 다가와(田川)시 주도로 ‘야마모토 사쿠베의 탄갱기록화’

가 일본 최초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기록유산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고조되었다. 이후 정부에 의한 기록유산 등재 추진과 각 지역의 '유산 발굴'이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세계유산이 역사 쟁점화된 것은 근대유산이 세계적 유산으로 공인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일본이 촉발한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논란은 강제동원과 역사인식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역사적 도발에 항의하는 한편, 2015년 '난징대학살'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을 국제간연대로 추진하고 있다. 근현대사에 대한 한중일의 엇갈린 역사의식은 이제 '유네스코 유산'을 둘러싼 동아시아 '역사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역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한중일은 세계유산이 갖는 본연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주제어

세계기록유산, 세계문화유산, 야마모토 사쿠베의 탄갱기록화,
'메이지 산업혁명: 철강·조선·석탄 산업', 하시마, 마이즈루항, 강제동원

.....

I .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몰고 온 2015년의 파장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사회는 국가 간 공조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을 창설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이들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 우호를 증진시키고자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를 조직했다. 유네스코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의 유산을 보호·보존하고, 그 가치를 세계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노

력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인류 보편적 가치로 지정하는 유산은,¹⁾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등으로 구성된 ‘세계유산(World Heritage)’, 인류의 각종 지식·기술·문화 등으로 구성된 ‘인류무형문화유산(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세계 각국의 기록유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MOW)’으로 구분된다.²⁾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세계유산협약’)에 의해 ‘세계유산’ 보호활동이 시작되고부터 인류의 보편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자국의 ‘근대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연이어 등재하면서 동북아시아는 격랑에 휩싸였다.

2015년 봄, 국내에서는 일본정부가 등재를 추진 중인 ‘근대산업시설’, ‘메이지산업혁명: 철강·조선·석탄 산업’ 유산에 군함도를 비롯한 각종 강제동원 관련 시설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신문·방송을 불문하고 연일 계속된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비판의 목소리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수년전부터

1)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세계유산-문화유산(기념물(기념물, 건축물, 고고 유적 등); 건조물군(독립 혹은 이어져있는 구조물로서 역사상,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유적지(인공물, 혹은 인공과 자연의 결합물로 역사상,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자연유산(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으로 이룩된 자연 기념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복합유산(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2)인류무형문화유산-“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해 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 예술, 문화적 표현”(2001년부터 지정 개시, 한국·중국·일본 3개국 이 대표목록 중 절반을 차지), (3)세계기록유산-기록물, 영상 이미지, 오디오 등(1995년부터 등재 지정 시작, 최근 역사논쟁 가열)

2) 세계기록유산은 인류의 삶을 보여주는 기록물, 영상 등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기록물로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세계기억유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기록유산으로 명명하지만, 일본에서는 기억유산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있어 왔다.³⁾ 게다가 강제동원 관련 유산은 ‘세계문화유산’ 부문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일본은 이미 2011년 ‘세계기록유산’에 규슈지역 ‘석탄사 관련 기록물(야마모토 사쿠베의 탄갱기록화)’을 등재하였고, 2015년에는 시베리아포로역류문제 등이 포함된 ‘귀환’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였다. 사실상 역사마찰의 소지가 더욱 큰 것은 세계기록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본의 유산등재 추진에 대해 한국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왔다.

일본이 촉발한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논란은 강제동원에 그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역사적 도발에 항의하며 ‘난징대학살’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였고(2015년), 일본은 이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국사 중심의 근현대사 관련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과 강제동원 기록물 등을 등재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근현대사에 대한 한중일의 엇갈린 역사의식은 이제 ‘유네스코 유산’을 둘러싼 동아시아 ‘역사전쟁’으로 비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활동의 경위와 목표, 그것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군함도’ 등 세계문화유산 문제에서부터, 그동안 간과되어온 ‘세계기록유산’의 논쟁 지점들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향방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3)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하시마탄광에 대한 한인 사망자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발간한 2012년 보고서는 일본이 하시마 등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책임자: 윤지현), 2012.12) 이러한 문제제기는 강동진 등에 의해 학술적으로 재부각되기도 했다.(강동진·남지현, 「일본 큐슈·야마구치 일원 근대화 산업유산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토계획』49(2), 2014)

Ⅱ . 근현대 세계유산 등재 추이와 현황

일본의 세계유산 관리는, 문화청이 문화유산을, 환경청과 임야청이 자연유산을 주로 담당하며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문부과학성과 국토교통성 등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조약 관계 부처 연락 회의를 통해 세계유산 추천대상이 결정된다. 추천대상은 ‘잠정리스트’로 외무성을 통해 유네스코에 제출된다.⁴⁾ 2015년 말까지 등재된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19건이며, 이 중 문화유산은 15건이다.⁵⁾ 대부분의 문화유산은 일본의 성(城)과 전통사찰 등이지만, 1996년 히로시마평화공원(Hiroshima Peace Memorial (Genbaku Dome))이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⁶⁾ 일본의 문화유산 등재방향은 근현대 시설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들어 ‘산업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등재 추진 움직임도 본격화되었다.

산업유산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공식 논의된 것은 1973년 영국에서 개최한 제1회 ‘산업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로, 회의 직후 국제산업유

4) 朝倉敏夫, 「日本の世界文化遺産の推進戦略」, 『백제문화』 40, 2009, 7쪽.

5) 2015년 12월 현재, 유네스코 공식홈페이지(whc.unesco.org/en/list)

6) 1952년 8월 히로시마 원폭 돔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원폭 사망자 위령비가 건립되었고, 1955년에 원폭자료관(평화기념자료관)이 개관했다. 이후 냉전시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국제적인 핵무기 반대운동의 상징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No more 히로시마’·‘No more 나가사키’ 등의 슬로건에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런 가운데 1970년대부터 전쟁 당시의 체험, 그 중에서도 공습에 대한 피해를 기록하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는 ‘전쟁은 군인만이 아닌 일반인과 어린이에게도 괴로운 기억을 준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체험을 피해자로서 계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82년 일본교과서 파동을 겪게 된 일본 사회 한편에서는 자신들에게 ‘아시아침략’이라는 관점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인식하며 평화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다카지마 노부요시, 「일본평화자료관의 형성과 위기」,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2, 삼인, 2001, 128~129쪽.

히로시마평화공원의 기억과 표상이 보여주듯, ‘원폭’이라는 ‘유산’은 반전과 평화, 그리고 피해사관 등을 미묘하게 증첩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산보존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일본에서는 1977년부터 산업고고학회가 설립되고 시민차원에서 산업경관의 보존운동이 싹트기 시작함으로써 ‘근대화유산’, ‘산업유산’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후 각 지역에 있는 박물관·자료관에서 산업유산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정착하게 되었다.⁷⁾

정부 차원에서는, 1990년대 문화청에 의해 ‘근대화유산’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 경제산업성이 이를 ‘산업유산’과 연계하여 ‘근대화산업유산’을 고안하였다. 2007·2008년 경제산업성은 ‘근대화산업유산군’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산업사·지역사의 관점에서 ①‘산업근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②‘역사적 가치를 보다 현재화’하며, ③‘지역의 활성화에 역할’하는 전국 각지의 ‘유산’을 대상으로 함이 명시되었다.⁸⁾ 결국 근대화산업유산은 국가경제의 역사성과 국가 및 지역에서의 공동체의식·시장성을 대변하는 산업유구(産業遺構)로 명칭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관광자원의 활용과 점차 쇠퇴하는 지역사회의 부흥을 위한 방편으로 일본 근대산업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곳곳에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등재된 ‘이와미은광과 문화경관(Iwami Ginzan Silver Mine and its Cultural Landscape)’이다.

이와미은광은 시마네(島根)에 위치한 도쿠가와막부(幕府徳川)시대 대표적인 은광으로, 한때 일본 은생산의 거점이 된 곳이었다. 1923년 은광이 폐광되고 인근 마을이 황폐화되자, 마을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었다. 당시 유네스코는 이와미은광이 유산으로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신청을 미루라고 권고했지만, 일본정부는 신청을 강행했고, 아프리카국가들의 지원을 끌어내어 200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성공했다.⁹⁾ 이후 일본은 ‘산업유산’이 세계문화유산의 새로운

7) 木村至聖, 『産業遺産の記憶と表象』,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4, 92쪽.

8) 木村至聖, 『産業遺産の記憶と表象』,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4, 4쪽.

조류라고 판단하고, 관련된 각종 시설물의 유산 등재를 본격화했다.¹⁰⁾

일본정부는 이와미은광에 이어 ‘근대산업유산’으로서 ‘도미오카제사장과 견산업유산군(富岡製糸場と絹産業遺産群, Tomioka Silk Mill and Related Sites)’(이하, ‘도미오카 잠업유산’)등재를 추진하였다. 1872년 메이지정부에 의해 설립된 도미오카제사장은 프랑스식 잠업기술을 전수받아 일본 근대 잠업사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군마(群馬)현은 지역 연구자 및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2003년 8월부터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했다.¹¹⁾ 이어 2006년 제사장 및 10개소의 구성자산을 문화청에 제안한 후, 산업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여주는 핵심자산을 최종적으로 선별하였다. 그리고 2014년 4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성공하였다.¹²⁾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도미오카제사장은 관람객이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¹³⁾ 반면 2014년 일본 정부 추천 후보로 손꼽히던 ‘나가사키 교회군’은 산업유산 등재 추진 분위기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¹⁴⁾

한편 일본은 꾸준히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를 추진하여 성과를 거뒀지만, 세계기록유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5월 야마모토 사쿠베(山本作兵衛)의 탄생기록화가 일본의 첫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다가와(田川)시

9) 「유네스코 유산 인플레이션」, 『아시아경제』, 2013년 12월 19일자. 이와미은광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여러 가지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전까지 일본인들도 잘 모르던 곳이 세계유산이 된 데에는 로비력이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뉴욕타임즈는 ‘유령도시(Ghost Town)가 신흥도시(Boom Town)로 변모했다고 풍자하기도 했다.

10) 「『世界遺産』アピール成功, 日本勢のモデルに 富岡製糸場, 文化遺産登録へ」, 『朝日新聞』, 2014.4.27. 朝刊.

11) 「富岡製糸場, 世界遺産へ 絹産業を革新「日本近代化の鍵」 「登録」を勧告」, 『朝日新聞』, 2014.4.26. 夕刊.

12) 「産業遺産, 重視の流れ 富岡製糸場, 世界遺産へ」, 『朝日新聞』, 2014.4.27. 朝刊.

13) 「富岡製糸場, 入場200万人突破」, 『朝日新聞』, 2014.5.13. 夕刊.

14) 「文化審議会, 長崎教会群の推薦内定 世界遺産候補に」, 『朝日新聞』, 2014.7.11. 朝刊. 그러나 문화심의회는 나가사키 교회군을 2016년에 추천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주도로 추진된 탄갱기록화 등재가 성공하자, 일본 사회는 이에 고무되었다. 그러나 이는 곧 정부 비판으로 이어졌다.¹⁵⁾ 당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국보를 중심으로 순차적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등재 추진으로 실제 유산 등재는 지체되었고,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유산 등재를 이루게 된 것이다. 게다가 다가와시의 등재신청 등을 문부과학성이 신문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점까지 알려지면서 언론의 비난은 거세져갔다. 결과적으로 이후 문부과학성은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으며, 일본의 언론도 이에 대해 후속보도를 연이어 발표했다.

일본 최초로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성공한 다가와시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도 나섰다. 향후 야마모토 사쿠베의 탄갱화가 관광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세계기억유산추진실」이라는 보존·활용 전담부서를 설치했다.¹⁶⁾ 그리고 한국의 유산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1992년 세계기록유산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적극적으로 유산 등재에 나선 한국은 이미 9건의 유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한국은 여러 면에서 ‘기억유산 선진국’이라 평가되었다. 서울대학교에만 4건의 유산이 소장되어 있는 점,¹⁷⁾ ‘직지’의 현물은 없지만, 등재에 성공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¹⁸⁾ 시민 주도로 민주화기록물이 등재되었다는 점¹⁹⁾ 등은

15) 「ユネスコ記憶遺産に福岡・田川の炭鉱記録画 蚊帳の外, 文科省に波紋」, 2011.5.26. 夕刊.

16) 「田川市, 記憶遺産推進室置く 対外窓口を一本化」, 『朝日新聞』, 2011.10.7. 朝刊 筑豊.

17) 「(作兵衛繪卷 隣の「先進国」)ソウル 国民の誇り, 政府推進」, 『朝日新聞』, 2012.1.25. 朝刊 福岡.

18) 「(作兵衛繪卷 隣の「先進国」)清州 現物不在も積極活用」, 『朝日新聞』, 2012.1.26. 朝刊 福岡.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직지가 인쇄되었다는 흥덕사 유적을 발견하고, 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독일 구텐베르크박물관 등과의 공조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협조를 이끌어냈고, 등재 후에는 ‘직지상’을 제정하여 유네스코의 활동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세계적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19) 「兵衛繪卷 隣の「先進国」光州 政権との溝, 保存に影」, 『朝日新聞』, 2012.1.27. 朝

특히 주목되는 사례로 손꼽히며 언론을 통해 일반에 소개되었다.

탄갱기록화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이에 대한 일본사회의 관심은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2012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근현대 유산을 발굴, 재해석하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을 벌여나갔고, 정부는 이에 대한 조정 역할과 함께 정부 추천 대상 기록물을 선정하는 일을 병행하였다.

〈표 1〉 한국,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문화유산, 기록유산/ 2015.12 기준)

구분	한국, 일본의 주요 유산		세계유산 총건수
	한국	일본	
문화유산	12(문화 11)	19(문화 15)	1,031건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석굴암·불국사(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화순·강화고인돌유적(2000),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조선왕릉(2009), 남한산성(2014), 하회·양동마을(2014),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등	호류지(1993), 히메지성(1993), 교토 고대유적(1994), 히로시마 원폭기념물(1996), 후지산(2013), 이와미은광과 문화경관(2007), 도미오카 잠사시설(2014), 메이지산업혁명 관련 시설(2015) 등	
기록유산	13	5	348건
	훈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2001), 조선왕조의궤(2007), 5.18민주화운동 기록물(2011),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 등	야마모토 사쿠베의 탄갱기록화(2011), 藤原道長の 御堂関白記(2013), 慶長遣欧使節의 스페인 방문기(2013), '마이즈루 인양 기록물(2015)' 등	
	유산명, 괄호 안 숫자는 등재연도임		

Ⅲ. ‘메이지산업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강제동원 문제의 부상

1. ‘유산’의 구성과 등재 경위

2015년 7월 5일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메이지 산업혁명: 철강·조선·석탄 산업(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이하 ‘메이지 산업유산’) 등재가 결정되었다. 이는 규슈 일대에 산재한 산업유산 활용방안을 다룬 심포지엄이 열린지 꼭 10년만의 일이었다. 2006년 규슈지방 지사회(知事會)에서 ‘규슈근대화 산업유산의 보존·활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면서 유네스코 등재활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도쿠가와시대의 산업시설로서 이와미은광, 메이지 초기 산업시설로서 도미오카제사장에 이어 일본정부가 사활을 걸고 등재를 추진한 것은 바로 ‘메이지 산업혁명’의 증거물인 규슈의 산업유산이었다. 일본정부는 2006년 무렵부터 ‘메이지 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6년 8월에 하시마를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세계유산 등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중앙정부는 규슈지역 산업유산을 검토하면서, 이 시설물들은 규슈지역만이 아닌 일본 ‘근대화유산’으로 상징화하였다. 2008년 일본 문화청은 ‘규슈·야마구치의 근대화산업유산군(九州·山口の近代化産業遺産群)’을 세계유산 후보군에 정식 기재함으로써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공식 추진해갔다.

일본의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메이지 산업유산’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²⁰⁾

20) 「産業革命遺産, 推薦へ 八幡製鐵所施設など」世界遺産, 『朝日新聞』, 2013.9.15. 朝刊.

〈표 2〉 규슈·야마구치의 근대화산업유산군의 구성

현/지역	주요 시설물(遺構)
山口(萩)	萩反射炉, 松下村塾
福岡(八幡)	八幡製鐵所日本事務所, 遠賀川水源池
福岡·熊本(三池)	三池炭鉱万田坑·宮原坑, 三池港, 三角西港
佐賀	三重津海軍所跡
長崎	長崎造船所, 高島炭坑, 端島炭坑, 구유럽지택
鹿児島	旧集成館, 旧鹿児島紡績所技師館
岩手(釜石)	橋野高炉跡
静岡(韮山)	韮山反射炉

‘메이지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곳 중 대표적인 곳은 후쿠오카지역의 야하다제철소(八幡製鐵所),²¹⁾ 미이케탄광(三池炭鉱) 등과,²²⁾ 나가사키에 위치한 다카시마탄갱(高島炭坑)과 하시마탄갱(端島炭坑) 등이다. 여기서 하시마탄갱은 일명 군함도로 불리는 하시마의 해저탄광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산업시설은 모두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동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일본의 ‘산업혁명’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21) 야하다 제철소는 일본 최대의 제철소로 중공업 및 군수공업의 성장을 상징한다.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군수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였고, 패전 후 일본제철 주식회사는 GHQ(연합국총사령부)에 의해 해체되었다가, ‘신일본제철의 야하다제철소가 되었다. 수많은 한인들이 야하다제철소에 동원되었지만, 그 정확한 수는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강제동원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신일본제철 계열사가 운영한 작업장이 강제동원 현장 중 가장 많았다고 파악되었다. 『일본지역 강제노무동원현장, 신일본제철 계열 최다』, 『연합뉴스』, 2015. 12.6)

22) 미이케 탄광지대는 일본 유수의 석탄광산으로, 한때 규슈에서 2번째, 일본 전체에서는 5번째로 큰 탄광이었으나, 2차 대전 후 많은 탄갱이 폐쇄되었다. 『大牟田市史』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중 미츠이 광산으로 강제동원된 한인은 12,338명인데 이 중 2,297명이 미이케탄광에 배치되었다. 또한 일본 후생성에는 ‘三井 三池萬田炭礦 ‘강제동원자 명부’가 남아 있는데, 명부의 ‘관알산·징용’ 편을 보면 1942년 306명, 1943년 605명, 1944년 659명, 1945년 113명이 동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미이케 탄광의 대표적인 수용시설로는 마와타리(馬渡)사택이 있는데, 1989년 여기에서 『朝鮮京畿道長湍郡』 등 한인 노동자들이 쓴 글자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후 이 글씨는 오무타시 제1공원에 있는 ‘마와타리 조선인연행비(馬渡朝鮮人連行碑)’에 쓰였다.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の証言』, 明石書店, 1990, 32쪽.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주요 시설에 대한 '정비'와 제도개선을 일사천리로 추진하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메이지 산업유산' 중에서도 가장 주목된 시설물은 군함도(하시마)와 미이케탄광이었다. 일본정부는 먼저 이들 시설물 정비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나가사키시는 군함도 해안시설 및 건조물 등의 보존·복원 필요비용으로 144억엔을 추산하며 지원을 요청했다.²³⁾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군함도 정비가 진행되면서 군함도 '조선인 징용'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²⁴⁾ '메이지산업 유산' 등재를 위한 활동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결국 군함도는 2014년 사적으로 지적되었다.²⁵⁾

한편 일본 정부는 미이케 일대에서 가동 중인 산업시설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문화재가 아닌, 즉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은' 산업시설도 '가치가 증명되고 보호되고 있는 것이 심사된다면' '산업유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기도 했다.²⁶⁾ 심지어 일본 정부는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여타의 유산군을 후순위로 미루기도 하여,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하였다.²⁷⁾

결국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속에서 2015년 5월 '메이지 산업유산'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어두운 역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를 다루라는 유네스코 권고 속에서 규슈의 산업유산들은 결국 일본 '산업혁명'의 상징물로 등재되었다.

23) 「産業遺産の推薦, 政府が正式決定 世界遺産」, 『朝日新聞』, 2013.9.18. 朝刊.

24) 「現役工場, 世界遺産への悩み 推薦候補に4施設」, 『朝日新聞』, 2013.10.6. 朝刊.

25) 「軍艦島 史跡に 文化審答申」, 『朝日新聞』, 2014.6.21. 朝刊.

26) 「産業革命遺産, 推薦の経緯は?」, 『夕刊be』, 2013.10.12

27) 「(記者有論)世界文化遺産 官房長官「裁定」に違和感 中村俊介」, 『朝日新聞』, 2013.10.4. 朝刊.

2. 하시마(‘군함도’)의 역사와 한인 강제동원의 실상²⁸⁾

하시마(端島)는 일본 나가사키현 노모반도(野母半島) 서쪽, 나가사키항에서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이다. 하시마는 인근에 위치한 다카시마(高島)의 탄전에 부속된 탄광으로, 1890년 9월 미쓰비시(三菱)가 하시마광구를 인수하면서 해저탄광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미쓰비시는 하시마에 개발한 탄광을 미쓰비시합자회사 다카시마탄광의 지갱(支坑)으로 관리하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하시마에서는 연 20만 톤대의 석탄이 산출되었고 1941년에는 411,100톤이 채탄 되었다. 하시마에 탄광 산업이 성장할수록 거주 인구의 수도 늘어났다. 19세기 말 하시마 인구는 2천 명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1945년에는 5천 명을 넘어섰다. 석탄산업이 최고조였던 1950년대 하시마 인구밀도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높았다고 한다. 1km 정도의 둘레의 섬에는 채탄 시설과, 탄광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공간이 뽀뽀이 들어섰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하시마에는 1916년 일본 최초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가 세워졌다. 이때부터 하시마는 섬 자체가 하나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어갔다. 그리고 불과 반세기만에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1974년 하시마탄광은 폐광되었다. 결국 하시마에 살던 탄광 노동자들은 섬을 떠나게 되었고, 하시마는 무인도가 되었다.²⁹⁾

폐광 이후 하시마 출입은 오랫동안 금지되었고, 섬은 사실상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나가사키시가 하시마섬 일부를 정비하고 관광자원화하면서 섬은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다. 특히 유네스코 문화유

28) 하시마 관련 내용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 보고서, 2012년을 주로 참고함.

29) 2001년 미쓰비시는 ‘쓸모없는 콘크리트 섬’ 하시마를 다카시마쵸(高島町)에 무상양도하였다. 2005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하시마는 나가사키시(長崎市)에 편입되었다.

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일본 정부는 대대적으로 섬을 정비해 나갔다. 각종 홍보활동과 함께 섬이 007영화의 무대가 되면서 하시마는 ‘일본의 알카트라즈’로 알려지며 세계적 명소가 되었다.

하시마는 같은 시기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 한수산의 장편 소설 『까마귀』에서 일제 강제동원의 무대로 ‘지옥섬’ 하시마가 등장하였고,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 과정에서 하시마에서 자행된 강제동원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하시마는 지옥섬, 군함도로 악명을 떨치게 되었다. 이로써 하시마는 한일 간에 전혀 다른 역사무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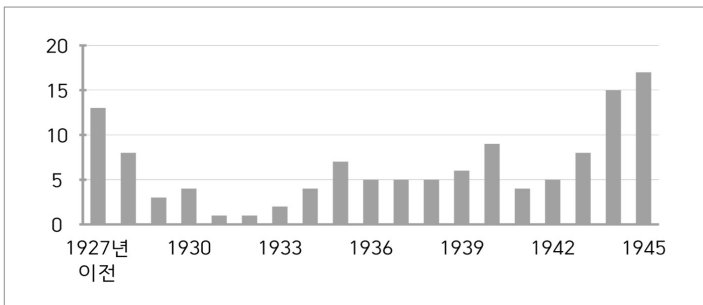
하시마에서 이뤄진 한인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재일동포 연구자들을 통해 나가사키지역 강제동원 문제가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수많은 한인들이 죽어간 동원지로 하시마가 주목되었다. 그리고 시민단체인 ‘인권을 지키는 모임’과 나가사키 원폭문제를 다루는 연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나가사키 강제동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인 강제동원의 실상이 밝혀져 나갔다.

하시마 탄광이 포함된 다카시마 탄갱에 한인 노동자의 존재가 자료에서 처음 확인되는 시기는 1917년이다. 다카시마 탄갱을 개발한 미쓰비시는 탄광 노동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조선에서도 노동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1917년 말경에는 150명의 한인이 다카시마 탄갱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고, 1918년 5월말 다카시마탄갱에는 334명의 한인 노동자가 있었다. 이는 전체 석탄 노동자 3,336명의 10%에 해당하는 수였다. 이후 하시마탄광에 있는 한인 비중은 급격히 증가했는데, 특히 강제동원이 한창이던 1941년 9월 14.3%, 1944년 4월 29.7%, 1944년 10월 32.2%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시마로 강제동원된 이들의 증언에서는 대체로 1943년 무렵 500~800명의 한인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한인 노동자는 갯내에서 채탄하는 경우가 많아 일본인 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갯내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해저 탄광인 하시마의 노동 환경은 다른 탄광과 비교해도 '최악'이었다고 알려진다. 첫째, 바다 밑에 탄광에 있어 채탄할 때마다 염분 강한 갯내수가 쏟아져 갯부들은 각종 피부질환을 겪어야 했다. 둘째, 미끄럽고 경사진 탄갱로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했다. 셋째, 석탄이 미분화(微粉化)되어 자연발화와 가스 분출의 위험도 높았다. 이러한 위험한 채탄환경으로 인해 일본인 노동자는 갈수록 하시마탄광을 꺼려했고, 대신 한인들이 동원되어 탄갱 깊숙한 곳까지 투입되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속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나가사키지역 「화장인허증 및 재해보고서(火葬認許証及び変災報告書-長崎)」 등에 따르면 1925년부터 1945년에 사망한 한인 122명의 신원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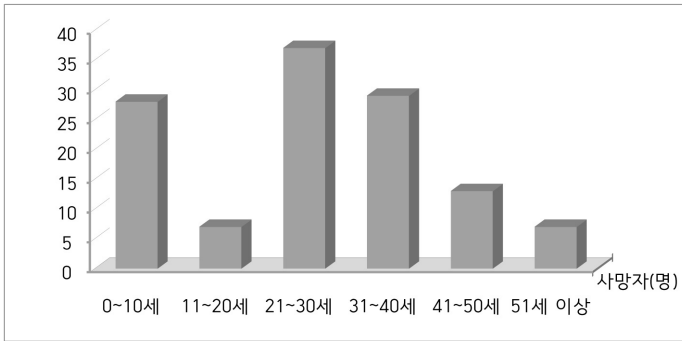
〈표 3〉 연도별 한인 사망자수³⁰⁾



〈표 3〉를 보면 한인 사망자의 수가 193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다가 1944, 1945년 크게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한인 노동자 수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갯내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는 데에도 이유가 있었다.

30)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 보고서, 47쪽.

〈표 4〉 연령별 한인 사망자수³¹⁾



〈표 4〉를 보면, 20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가운데, 10세 이하 아동의 사망이 30대 사망자 못지않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인 노동자 가족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잃은 경우인데, 아이들은 영양실조와 면역력 부족 등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대체로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사망자 30%가 질병으로 사망했다. 그 중 폐렴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10명이었다. 또한 ‘타박상’, ‘골절’ 등 ‘외상 사망자’는 13명이었다. 이들은 외상으로 인해 머리, 내장, 폐 등 신체의 다양한 부분에 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질식’과 ‘압사’ 등 매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7명이다. 한편 ‘변사(變死) 사망자’로 분류된 인원은 24명인데 이들 대부분은 외상이나 탄광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였다. 특수한 사정으로 사망한 이들도 있다. 하시마를 탈출하다가, 혹은 탄갱에서 출수(出水) 사고가 나서 ‘익사’한 인원도 4명이 있었다. 그리고 자살한 18세 여성도 확인된다.³²⁾

하시마에서 사망한 한인은 섬 인근에서 임시로 화장된 후 유골이 되

31)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 보고서, 51쪽.

32)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 보고서, 54쪽.

었다. 그러나 1974년 하시마탄광이 폐광되면서 유골 모두가 다카시마로 옮겨졌다가, 1988년 다카시마탄광 폐광 시 미쓰비시광업(주)에 의해 납골 시설이 모두 파괴되었다. 이때 지하납골당 ‘센닌즈카(千人塚)’에 있던 100여 구의 유골 단지가 제멋대로 분골되고 합사되어 버렸다고 한다. 이후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122명의 사망자 중 27명을 우선 ‘강제동원자’로 판정하고, 이들의 유골을 순차적으로 봉환해갔다.³³⁾

이렇듯 ‘메이지 산업혁명’의 유산은 일본 근대산업사의 상징물이면서도 제국주의시기 강제동원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일본에서도 일찍부터 파악되고 있었다. 특히 이코모스 위원인 한국의 강동진 교수는 2013년부터 현지조사와 함께 다방면에 걸쳐 문제제기를 하였다.³⁴⁾ 그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일본 규슈 일대의 근대산업유산군이 자격을 미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즉 전쟁의 유산이자 강제동원의 현장이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유산의 상태면에서 완전성(integrity)를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의 역사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서 ‘진정성(authenticity)’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했다.³⁵⁾

2015년 5월 한국·일본정부는 독일에서의 최종 회의를 앞두고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즉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강제노동이 이뤄진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산업혁명시설만을 미화하고,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공식 발언하며, 한국 정부

33) 결국 27명의 사망자 중 유골이 무사히 고국으로 봉환된 사망자는 15명, 봉환되지 않은 사망자는 10명이다.(2012년 말 기준) 그러나 이름과 고향을 알아도 연고자를 몰라 봉환하지 못한 유골도 있는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한 것이 사실이다.

34) 『朝鮮人徴用の調査で記録作家に聞き取り 田川, イコモス委員ら』, 『朝日新聞』, 2013. 8.1. 朝刊 筑豊. 일본 언론은 강동진 교수의 조사 일정과 경과 등을 상세히 보도할 만큼 깊은 관심과 우려를 안고 있었다.

35) 강동진·남지현, 앞의 논문, 123~127쪽.

는 세계유산위원회를 대상으로 직접 반대운동에 나섰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문기관이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인정하는데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며 대치했다.³⁶⁾ 한편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미일관계의 강화와 중일관계의 개선 속에 고립된 한국이 국내정치를 위해 취한 것으로, “등록 저지가 어렵다는 것은 한국 측도 이해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지적도 나왔다.³⁷⁾ 이후 한일 양 정부는 유례없이 세계유산을 둘러싼 협의를 이어갔다.

7월 5일 독일 본 월드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신청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규슈야마구치와 관련 지역’에 대한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때 일본 대표단은 등재 결정 직전 위원국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동원으로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 2차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관철했으며, 그 과정에서 양국 간 극한 대립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냈다”고 평가했다.³⁸⁾ 그러나 일본 정부는 “forced to work”는 ‘일하게 되었다(働かされた)’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발언이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³⁹⁾ 결국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국·일본의 협의와 양해, 그리고 공식 발언과 해석은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36) 「韓国側の反発、菅氏が不快感 産業革命遺産めぐり」, 『朝日新聞』, 2015.5.8. 夕刊.

37) 「韓国反発、国民感情くむ 「明治日本の産業遺産」の世界遺産勧告」, 『朝日新聞』, 2015.5.9. 朝刊.

38) 「日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이데일리』, 2015.7.6

39) 「日정부 “조선인 강제노동 인정 안했다…징용 불법 아니다”」, 『연합뉴스』, 2015.7.6.

Ⅳ. 근현대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와 또 다른 갈등의 잠복

1. ‘야마모토 사쿠베의 탄갱기록화’의 등재와 치쿠호탄광 강제동원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세계기록유산은 그다지 주목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1년 야마모토 사쿠베(山本作兵衛, 1892~1984)가 그린 탄갱화와 일기 등이 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중앙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야마모토는 1892년 5월 후쿠오카현 가호군(嘉穂郡) 가사마츠무라츠루미외(笠松村鶴三緒, 현재 이즈카시(飯塚市))에서 태어났다. 갱부인 아버지를 따라 후쿠오카 지역을 전전하던 그는 7, 8살 때부터 형과 함께 갱내에 들어가 탄차를 밀며 탄광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1955년 퇴직할 때까지 약 50년간 18곳의 탄갱에서 일하며 탄광의 역사를 몸소 경험했다.

1958년부터 그는 치쿠호탄광에 대한 기억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옛날 탄갱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갱내·갱외 노동, 시설·관리, 생활, 숙신, 재수, 탄갱을 방문한 예능인·상인, 유행가, 동물, 쌀 소동, 싸움, 린치, 주요 사건 등을 테마로 각종 탄갱기록화를 남겼다. 이를 바탕으로 『메이지, 다이쇼 탄갱 그림책』(1963)을 발간하였으며, 많은 그림을 시립도서관에 기증함으로써 탄광에 대한 기억을 지역민들과 공유했다.

다가와시와 후쿠오카현립대학은 그가 남긴 탄광 그림 총 584점(목화원화 306점, 수채화 278점)과 일기 등 각종 기록물을 묶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였다. 등재 추진 단계에서 ‘탄갱화’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2011년 일본 최초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탄갱화 등의 유산 등재는 지역사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등재에 성공한 첫 사례였다. 반면 이전까지 한 건의 기록유산 등재도 이루지 못한 일본정부는 대

조적으로 엄청난 비난에 휩싸였다. 야마모토가 그린 그림은 대부분 다가와시에 위치한 치쿠호탄광에 관한 것으로 갱부의 생활상 등을 잘 보여주는 ‘역사자료’로 일본에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탄갱기록화의 배경이 되는 치쿠호탄광은 규슈지역에서도 손꼽히는 한인 강제동원지이다. 치쿠호탄광은 태평양전쟁 동안 일본 전체 석탄 생산의 평균 33%를 생산해 낸 일본 최대 탄광지대로, 미즈비시(三菱)·스미토모(住友)·후루가와(古河) 등 일본 대재벌 소유탄광과 아소(麻生)·메이지(明治) 등 지방 대자본가들이 운영하던 탄광이 밀집한 곳이었다. 때문에 당시 강제동원에 대한 많은 자료와 증언이 남아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강제동원 후 노동환경에 대해 강제동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943년 어느 날 겨우 15살 된 동포 소년이 노무계에 몸이 아프니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분에 넘치는 소리’라며 그 자리에서 거부당한 소년은 울면서 갱으로 들어갔다가 낙반사고로 허리뼈가 부러져 머리를 양다리 사이에 파묻은 끔찍한 상태로 숨졌다. 사체를 갱 밖으로 옮기려 했으나 일본인 감독이 일이 끝날 때까지 옮기지 못하게 해 그대로 뒀다가 일을 끝낸 후 옮겼다.⁴⁰⁾

해방 후 치쿠호탄광에 있던 많은 한인들이 귀환했지만, 탄광에서 숨진 많은 무연고자의 유골은 후쿠오카현 내 370여 사찰과,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아직도 버려져 있다. 한편 칸노지(觀音寺) 납골당(이즈카시), 다가와시 산수이쵸(山水町) 공동묘지, 호코지(法光寺) 조선인순난자비(朝鮮人殉難者碑), 다가와시 가와미야 등지에는 수많은 한인들의 유골이 곳곳에 모셔져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유골이 봉안된 곳은 이즈카레이엔(飯塚靈園)의 무궁화당이다. 이즈카시 쇼지(庄司) 이즈카영원(飯塚靈園) 국제교류

40) 공봉식 외, 『재일동포』, 문학관, 1997. 44쪽.

광장에 위치한 이 납골당에는 40여기의 유골이 봉안되어 있다.⁴¹⁾ 추도당인 무궁화당 옆 추도비에는 다음과 같이 비문이 새겨져 있다.

지난날의 전쟁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수많은 조선인과 외국인이 일본각지로 강제 연행되어 왔습니다. 여기 飯塚에는 15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탄광에 끌려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筑豊의 발전과 일본의 근대화는 조선인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패전으로 조선반도가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반세기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지금도 筑豊의 여러 곳에는 많은 유골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골을 수집하여 납골당에 안치하고 추도하자」고 하는 호소에 공감한 사람들이 정재를 내고 각 자치체의 협력을 얻어서 여기에 추도당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함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불행한 과오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으리라는 결의를 담은 이 추도당과 국제 교류광장은 일본과 코리아 양 민족은 물론 모든 일류가 항구적인 평화를 희구하는 발신지로서의 의의를 새롭게 하고 세대를 넘어서 지켜나가려는 약속과 기원입니다. 2000. 12

결국 석탄산업의 중심지였던 치쿠호탄광 일대는 석탄산업의 역사와 식민지 강제동원의 역사가 교차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야마모토 사쿠베의 탄갱화와 석탄역사박물관에는 일본인 석탄노동자의 고단한

41) 무궁화당은 건립의 ‘재일 코리아 강제연행 희생자 납골식 추도비 건립실행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筑豊으로부터 세계를 보는 모임’, ‘筑豊山の 모임’, ‘강제연행을 생각하는 모임’, ‘福岡縣퇴직자교원협회’, ‘재일코리아동포의 모임(民團, 朝總聯 연합)’, ‘연합遠賀川지역협의회’, ‘松岩보살관리조합’ 기타 筑豊시 정촌의 자치체 등 시민단체의 협심으로 세워졌다. 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의 독립운동사적지 보고서』, 2012.

삶과 일상이 그려져 있을 뿐 강제동원된 한인 노동자들의 중첩된 고난과 분노는 다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마모토 컬렉션이 등재될 당시 유네스코 심사자는 이를 두고 “손으로 적은 인권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한다.⁴²⁾

2. ‘마이즈루 인양기록물’·‘가미가제 기록물’의 등재 추진과 현황

다가와시 주도로 야마모토 사쿠베의 탄갱기록화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일본 곳곳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2012년 6월 가고시마현 미나미규슈(南九州)시는 소위 가미가제 기록물인 ‘특공대원’의 유서와 일기를 기록유산에 등재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해 7월 교토부(京都府)는 ‘마이즈루(舞鶴)항의 인양(引揚)’⁴³⁾ 기록물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공포하였다. 두 기록물은 모두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기억의 소산으로, 패전을 표상하는 미묘한 상징물들이다. 이를 대변하듯 두 지자체는 모두 ‘전후 70년’인 2015년 등재를 목표로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마이즈루는 1945년부터 1958년까지 13년간 약 66만 명이 해외에서 인양된 지정항구였다. 하카다(博多), 센자키(仙崎) 등이 주로 한국을 잇는 인양항구 역할을 했다면, 마이즈루는 만주나 소련 지역의 일본인 인양 창구로 기능했으며, 가장 늦게까지 인양항구로 역할하였다. 때문에 마이즈루는 패전과 인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표상되고 있다.

마이즈루를 통해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 가운데는 만주개척단으로 중

42) 강동진·남지현, 앞의 논문, 126쪽.

43) 일본에서 引揚(히키야게)은 해외에 있던 자국민의 고국 귀환을 의미한다. 다만 일반적 ‘歸還’과 달리 해외에서의 구제와 귀환 등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아울러 군인의 소집해제와 귀환에 대해서는 ‘復員’,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는 ‘引揚’으로 구분하여 쓰인다. 이러한 맥락을 전달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인양’으로 통칭한다.

국 동북지역에 이주했다가 귀환한 민간인과 종전 후 소련군에 의해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던 일본군 포로 등 독특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를 보여주듯 마이즈루인양기념관(舞鶴引揚記念館)에는 시베리아 억류 및 인양 관련 11,817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에는 억류병사가 자작나무 껍질에 쓴 ‘백화일지초(白樺日誌抄)’ 등이 포함되어 있다.⁴⁴⁾ 인양 자료를 소장한 마이즈루인양기념관(舞鶴引揚記念館)을 중심으로 추진된 유산 등재 움직임은 지역사회의 후원에 힘입어 활성화되었다. 마이즈루시의 각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마이즈루관광협회는 ‘응원하는 모임(応援する会)’을 조직하여 공식적으로 후원에 나섰다.⁴⁵⁾

마이즈루시 또한 세계유산 관련 학술회의를 주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등재활동을 벌여나갔다. 다만 활동 과정에서 사실상 일본의 패전사관에 기인한 관련 기록물을 주변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마이즈루 시 측은 “러시아는 소련과 다른 나라이며, 당시 소련관할하의 출항지였던 나호드카와 마이즈루가 교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나아가 가미가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이즈루의 경우, “(1)포로 억류는 동구권에서도 이뤄진 보편적 문제이며, (2)물수 위기를 벗어나며 기적적으로 갖고 돌아온 희소적 자료라는 점을 유네스코 측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⁴⁶⁾ 마이즈루시는 결국 기록물에 대한 국제적 인정과 지지가 필연적이라 판단하고 국제교류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예컨대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국에서 등재 서명운동을 벌이고,

44) 「「引き揚げ」, 世界記憶遺産に 記念館所蔵品, 舞鶴市申請へ」, 『朝日新聞』, 2012.7.21. 朝刊 丹後.

45) 「引揚記念館「世界記憶遺産に」 舞鶴に応援の会発足」, 『朝日新聞』, 2013.4.20. 朝刊 丹後. 이후 후원 단체 및 개인은 급속히 증가하여 5개월 만에 32단체, 20,933명에 달하게 되었다.

46) 「記憶遺産, 険しい道 舞鶴引き揚げ資料 申請「地方1枠」・他国の反応不透明」, 『朝日新聞』, 2014.2.19. 朝刊.

1947~1949년간 마이즈루인양원호국에서 군인으로 근무했던 미국인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주목을 끌었다.⁴⁷⁾

2014년 6월, 마이즈루 인양기록물은 첫 관문인 국내 추천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기록유산의 경우 전국의 신청물을 수합한 후,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총 2건이 정부 추천으로 유네스코에 전달되는데, 사실상 국내 추천에 통과하면 대부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때문에 국내 경쟁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마이즈루 인양기록물은 나라인권재단(奈良人權文化財団)의 ‘전국수평사 창설선언과 관계자료’, 미나미규슈시의 ‘가미가제 기록물’ 등을 제치고 최종 추천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선정을 주관한 일본유네스코국내위원회는 「마이즈루로의 생환 1945~1956, 시베리아역류 등 일본인의 본국 인양 기록」 선정 이유로 (1)마이즈루시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관리가 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시설정비가 예정되어 있음, (2)마이즈루시와 러시아의 나호드카시가 자매도시로서 이해와 협력을 하는 등, 보다 넓은 시각에서 세계적 중요성이 설명되고 있음, (3) 회화, 일기, 편지 등 기록매체가 다양함, (4)모든 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며, 디지털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음 등을 꼽았다.⁴⁸⁾

반면, 미나미규슈시가 추진한 ‘가미가제 기록물’은 초기부터 여러 가지 한계를 지적받았고, 결국 국내 추천에서 제외되었다. 2012년 6월 미나미규슈시는 지란(知覽)에 소재한 특공평화기념관 소장 자료 중 특공대원의 일기·수첩 등 2,390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⁴⁹⁾ 등재활동에 앞장섰던 미나미규슈시장 시모이데 간베이

47) 「元米兵, 65年ぶり舞鶴へ 抑留歴史「伝えて」 日系2世・オカさん」, 『朝日新聞』, 2014. 3.29. 朝刊 丹後.

48) 「記憶遺産推薦, 世界的な希少性評価 舞鶴の申請に携わった黒沢さんに聞く」, 『朝日新聞』, 2004.6.14. 朝刊.

49) 「特攻隊員の絶筆「記憶遺産」に 知覧収蔵2390点, 南九州市申請へ」, 『朝日新聞』, 2012. 6.5. 朝刊. 이후 국내 신청단계에서 시 측은 자료 중 기록물 333점을 추가 선별하였다.

(霜出勸平)는 “전 세계로 발신하고 있는 평화정보를 세계기록으로 등록하고 싶다”는 견해를 밝히며,⁵⁰⁾ ‘가미가제 기록물’을 ‘평화정보’로 형상화했다. 그러나 가미가제 기록물은 2014년 일본만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으며 선정에 실패했다.⁵¹⁾

‘가미가제 기록물’은 등재 추진만으로도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은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전쟁 피해국인 서구 국가들도 이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영국과 호주 언론은 보도방송을 통해 관련 사실을 비판적으로 전하기도 했다.⁵²⁾ 결국 ‘전쟁 미화’라는 국내외 비판 여론으로 ‘가미가제 기록물’은 국내 추천물에서 배제되었지만, 미나미규슈시는 2017년 목표로 등재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V. 세계유산으로 충돌하는 동북아, 전망과 과제

2015년 중국은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물을, 일본은 ‘마이즈루(舞鶴)항으로의 귀환’ 관련 기록물을 각각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다. 난징대학살 기록물 등재는 일본의 계속된 역사왜곡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상징하는 일로, 일본정부는 “유네스코 분담금 정지, 삭감을 검토”하겠다고며 극렬하게 반대했다.⁵³⁾ 그러자 중국은 ‘충격적 위협’이라며 일본정부를 다시 비판

50) 「特攻隊員，登録で供養を」世界記憶遺産へ，南九州市・資料保存など検討，『朝日新聞』，2012.6.5. 朝刊 鹿児島全県.

51) 「「日本からの視点のみ」厳しい評価 特攻隊員の遺書，記憶遺産候補から落選」，『朝日新聞』，2014.6.13. 朝刊.

52) 「(排除の理由: 3)特攻，伝わらぬ実像」，『朝日新聞』，2014.4.30. 朝刊.

53) 2016년 유네스코 주요 회원국의 분담금 비율을 보면, 일본은 9.68%(1675만 달러+1,290 유로)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중국이

하고 나섰다.

난징대학살은 일본제국주의의 중국 침략과정에서 일어난 전쟁범죄이다. 중국 정부는 대학살이 일어난 12월 13일을 난징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일로 제정하였다. 2014년 첫 국가추모식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첫 국가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난징시에서는 “국치를 잊지 말고 중화의 꿈을 실현하자”(勿忘國恥 圓夢中華), “과거를 잊지 말고 미래의 스승으로 삼자”(前事不忘 後事之師)는 등의 구호가 시내 곳곳에 내걸렸다.⁵⁴⁾

한편 일본이 등재한 ‘마이즈루항으로의 인양’은 패전 후 일본으로 귀환한 일본인들만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시베리아 억류포로 등 주로 소련 지역에서 송환된 이들의 ‘피해사관’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인양기록물’은 전쟁이 끝난 후 민간인들이 겪은 고난, 즉 패전국민의 처절한 고통을 ‘국민’ 각자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궁극적 패전 후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가, 냉전체제에서 일본인이 어떤 희생을 겪어야 했는가 등을 설명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여기에는 소련에 의해 억류된 ‘시베리아 억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 러시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일본군 출신으로 시베리아 억류된 한국인 약 1만 명의 사실관계도 다루지 않고 있다.⁵⁵⁾ 결국 자국사 중심의 역사해석과 세계유산등재 움직임

7.92%(1,371만 달러+1,056만 유로)로 2위, 한국은 2.04%(353만 달러+272만 유로)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발표 - https://www.unesco.or.kr/about/sub_03_03.asp)

- 54) 「中 난징대학살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 첫 국가추모식」, 『연합뉴스』, 2015년 12월 13일자.
- 55) 시베리아에 억류된 일본군 병사는 대략 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 한인의 포로 규모는 3~4천 명이라는 견해(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시베리아 억류 조선인 포로문제 진상조사 -중국 동북지역 강제동원 조선인을 중심으로-』, 2010)와 1만 명이라는 견해(이평래, 「제2차대전 후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로 끌려간 한인 포로의 증언」, 『중앙아시아연구』 9, 2004.12) 등이 있다.

은 전쟁 말기 일본의 ‘고난’, 패전 후 일본인의 ‘수난’을 상징화하는 일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근현대사에 대한 한중일의 엇갈린 역사의식은 이제 ‘유네스코 유산’을 둘러싼 동아시아 ‘역사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화청 장관은 한국과 중국에 뒤쳐진 일본의 기록유산 등재상황을 언급하며, “실지회복(失地回復)”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⁵⁶⁾ 한편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재 활동이 국제간 연대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⁵⁷⁾ 이에 일본 정부는 강력 저지를 표방하며,⁵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부정과 세계적 공론화 억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이 촉발한 세계유산 등재경쟁은 이제 ‘역사기억논쟁’ 혹은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본연의 가치를 인식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은 일국(一國)의 유산이 아닌,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유산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 누구라도 가서 보고 싶고,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과연 균함도를 비롯한 제국주의 일본의 유산을 한국인과 중국인이 동감하며 관람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그러면서도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응축되어 있는 유산만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세계유산 등재는 자국사 중심으로 흐르는 ‘자기중심적 해석’이 용인되고 있다. 근현대 유산 등재는

56) 「世界記憶遺産, 初の国内選考 4件中2件選出, 政府推薦「東寺」も」, 『朝日新聞』, 2014. 4.28. 夕刊

57)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의 유산 등재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여성부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관련 업무를 사실상 중단했으며, 이에 따라 유산 등재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58) 「日, 위안부 자료 세계유산신청에 경계…“모든 힘 다해 저지”」, 『연합뉴스』, 2016.6.2.

특히 그러한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세계사 속에서의 역사, 풍부한 해석이 가능한 열린 역사, 인류보편의 가치추구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유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6년 5월 24일

논문 심사일 : 2016년 6월 3일

게재 확정일 : 2016년 6월 10일

참고문헌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 whc.unesco.org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heritage.unesco.or.kr

일본유네스코국내위원회 : www.mext.go.jp/unesco

야마모토 사쿠베 탄갱기록화 컬렉션 : www.y-sakubei.com

朝創敏夫, 「日本の世界文化遺産の推進戦略」, 『백제문화』 40, 2009.

강동진·남지현, 「일본 큐슈-야마구치 일원 근대화 산업유산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토계획』 49(2), 2014.

서민교,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60, 2015.

林えいだい, 『強制連行・強制労働 筑豊朝鮮人坑夫の記録』, 現代史出版會, 1981.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の証言』, 明石書店, 1990.

공봉식 외, 『재일동포』, 문학관, 1997.

金光烈, 『目で見た筑豊 朝鮮人炭鑛労働の記録』, 明石書店, 2004.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일의 전쟁유적과 동북아 평화』, 2010.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 실태 기초조사』 보고서, 2012.

木村至聖, 『産業遺産の記憶と表象』,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4.

福間良明·山口誠, 『「知覽」の誕生』, 栢書房, 2015.

Abstract

Inscription of Japan's UNESCO World Heritage and Conflict of Northeast Asian History

Sun-Ik Hwang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was intensified when ‘modern industrial facilities of Japan’(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have been inscrib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2015. Because many of Japan's major modern industrial facilities were fields of compulsory mobilization by Japanese imperialism,

In particular, history conflict surrounding the World Heritage was popularly heighten while ‘Island of Warship(Hashima)’ became the symbolic place of history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Excavation and the utilization of modern heritage sought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in 1990s. And the Ministry of Economy was designed to ‘modernize industrial heritage’ by linking them with ‘industrial heritage’ in 2000s. Eventually, remains of across the country emerged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for ‘regional revitalization’, which led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Meiji(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inscribed as a World Heritage.

Memory of the World was been different from World Cultural Heritage, which led the Japanese government. Interest in documentary was rapidly risen through listing of ‘Sakubei Yamamoto Collection’ as a first Japanese Memory of the World which led Fukuoka Dagawa city(田川) in 2011. After that promoting Memory of

the World by the Government and 'heritage excavation' of each region have led to competitive.

Japan's World Heritage became a history issue when modern heritage authorized as a worldwide heritage. However, debates about UNESCO heritage which sparked by Japanese has not only history issue of compulsory mobilization, China has protest against historical provocations. On the other hand, Collection of the 'Nanjing Massacre' listed as a 'Memory of the World(2015)'. The Japanese government has vigorously opposed it, South Korea has promoted to listing record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compulsory mobiliz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modern history of Korea, China and Japan now has a staggered historical consciousness spark East Asia 'history wars' surrounding 'UNESCO heritage' which is expected to continue for a while. The history of conflict in Northeast Asia is rising now, Korea, China and Japan will look back at the original value of World Heritage.

Key words

World Heritage, Memory of the World: MOW,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Sakubei Yamamoto Collection, Hashima, Return to Maizuru Port
—Documents Related to the Internment and Repatriation Experiences of Japanese(1945-1956), modernize industrial heritage